

제100회 전국체전 시민위원회 출범

▶ 전국체전 엠블럼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99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기원을 위한 시민위원회(전국체전 시민위원회)가 출범했다.

서울시는 6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전국체전 시민위원회 발족식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전국체전 시민위원회는 내년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종료시까지 시민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전국체전 시민위원회는 체육, 문화·공연, 언론·홍보, 남북관계 전

서울시,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발족식
 직능별 전문가 참여 7개 분과 229명 구성

문가와 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시민대표, 관광, 숙박, 음식, 교통 등 직능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세부적으로 ▲평화·화합 ▲체육진흥 ▲체육100년사 ▲개·폐회식 ▲문화·공연 ▲손님맞이 ▲시민참여 등 총 7개 분과와 229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주원홍 서울시체육회 수석부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서울시는 전국체전 최초로 전국 순회 성과 봉송을 실시하고 우리시와 결연관계를 맺은 8개 자매우

도시의 축하사절단을 개막식에 초청한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체전도 준비 중이다.

또 역대 최대 수준의 시민지원봉사단(6000명)과 시민서포터즈단(1만명)을 구성하고 전국체전기간 중 시민기자단(100명)을 운영한다.

서울시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은 "전국체전 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행사를 발굴해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박원순 "文 정부와 서울시는 운명공동체"...갈등설 일축

"한국노총 집회, 당대표실·청와대와 교감 후 참석"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지난날 17일 열린 한국노총 집회 참석으로 정부와 갈등설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하나의 공동운명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웰드컬처오픈코리야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 더불어민 주당과 서울시는 정말 하나로 연결돼 있다. 추후의 의혹도 안가지 않으면 좋겠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여권과의 갈등이 전혀 없었다. (참석한 집회가) 한국노총 집회가 아니냐"면서 "한국노총은 정부와의 대화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당 대표실이나 청와대와 교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 경험을 통해서 지난 7년 동안 서울시 산하기관이 많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조합도 많고 그렇지만, 아직 한번도 파업이 없지 않았느냐"며 "오랫동안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깊은 신뢰를 쌓고 있었고 대화와 타협을 늘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지구 저와 당 또는 저와 정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의 글이나 말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잘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와 저는 하나의 공동운명체 같이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해 정치권의 비판을 받았다.

당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6개월

또는 1년)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여권내 대선주자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박 시장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었다. 박 시장과 문재인 정부 갈등설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회 여야 합의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당내 기반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국정조사 통해서 야당이 제기한 것에 비하면 실제 큰 비리나 이런 게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를 하겠다.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 문제를 예산안·민생법안과 연계시키면서 (국정조사를) 요청했다. 야당이 제기한 것인데 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빼어가는 건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야당이 이를 이용해 정치공세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당당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성실하고 당당하게 국정조사에 임할 것이고, 채용비리가 드러날 경우 제도를 바꾸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8월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인해 보류한 '여의도·용산 미스터 플랜'에 대해 언제 재개할 지를 묻는 질문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철저히 협의하면서 추후에 고민해 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뉴스스



인천공항, 사랑의 김장담그기
 지난 4일 오후 인천공항 스키아동 체육관에서 열린 인천공항 사랑의 김장담그기 나눔 행사에서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과 임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사는 이날 담근 김장김치 1만500포기(21t 상당)를 인천시 중구·동구·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1000 가정에 공향인근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전달했다.

서울시 전문재능봉사단 올해 921회 기부...2만5천명 수혜

오늘 활동보고회 개최...우수사례 공유 및 표창 예정

서울시가 전문봉사단의 재능 기부 사례 공유 및 운영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보고회를 오는 6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26개의 해피프로보노 전문재능봉사단의 올해 봉사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시민 참여형 재능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해피프로보노 전문재능봉사단은 문화·예술, 기술·기능 및 보건·의료 등 5개 분야로 구성된 민간 전문재능기부 봉사단체다.

올해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을 찾아 2만4983명의 시민에게 의료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및 법률서비스 등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전했다.

이날 활동보고회에서는 6개 우수

전문재능봉사단이 서울시청과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장 감사패를 수상한다.

박병권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묵묵히 재능기부와 함께 운영을 베풀어준 해피프로보노 전문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 참여형 재능 나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

